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김 남 초

세실리아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장 · 전 교육부장



**회** 원여러분 그간 안녕하  
셨습니까? 대지가 전해  
주는 봄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듣고 싶어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습  
니다. 먼저 맑은 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저의 잘못을 용서 구하  
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  
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많은 외부 활동들을 일부 중단하고  
학교를 지키며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  
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개인사정으로 회원여러분  
들께 제대로 인사도 올리지 못해 죄송스러움만 가  
득했었는데... 이렇게 지면까지 할애하시어 기회  
를 주신 회장님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저 황감할 뿐입니다. 아마도 뒤에서 소리  
없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얼마 전 3월 초에는 때 아닌 폭설로 고속  
도로가 마비되는가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저  
럭... 어찌어찌 견디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  
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인한 충격은 저에게도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  
로 매우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날 오후는 온  
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

았고 불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어떠한 정치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흑연 사회적으로 덕망 있으신 분들께  
서 정치에 입문하시는 뉴스를 보노라면... 그냥 그  
이미지대로 사시지... 어찌다 정치판에 끼어들어  
저 진흙탕 속에서 아비규환 하시려 하는지 그저 안  
타까울 뿐이었으니까요. 소시민인 제가 이렇진대  
하물며 애국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충격의 날이  
며칠 지난 지금 나라 안은 온통 보수와 진보의 갈등  
으로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세대간, 지역간으로 분열 되어 싸워야만 합니까?  
이념의 갈등으로 지금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 것  
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흑자는 민  
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  
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할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의 국민들은 갈등보다는 평화와 타협을 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요즈음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를 보셨겠  
지요... 이념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왜 죽어야 하  
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을 보며 그것은 그냥 영화일 뿐 이라고 간주해 버리  
신 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명은 하느님께  
로부터 온 고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생  
명은 오직 하느님께서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낱 무엇이건대 하느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유지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  
니까?

오늘날의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잘 사느냐 보  
다도 어떻게 잘 죽느냐에 있다고들 합니다. 돌아가  
시는 분들께 길 안내를 해드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  
답해 드리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생각하신다는 어느  
수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호스피스와 인연  
을 맺기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 이미 50대 초반에 접어들었지만 죽음이  
라는 말은 왠지 나와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간 진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보이지 못 했  
던 것이 사실이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님을 끌어안고 있는 피에타 상의 성모님을 보면서

사순절 시기에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 봅니다. 사랑  
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래도 더  
주고 싶어 안달하는 마지막 마음의 상태를 지닌 사  
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  
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회원 여러  
분들께 두서없이 한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행여 괴롭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가오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마음  
에도 평화와 온유가 부활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존의 이유

- 조병화 -

깊이 사귀지 마세.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애.

가벼운 정도로  
사귀세.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작별을 하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세.

너만이라든지,  
우리들만이라든지,

이것은 비밀일세라든지  
같은 말들을

하지 않기로 하세.

내가 너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쯤 간다는 것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별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

작별을 하며,  
작별을 하며  
사세.

작별이 오면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악수를 하세.